



김인철 대표이사

경 영 방 침

- 1. GLOBAL 인증체계 확립
- 2. 효율적인 경영관리 실시
- 3. Upgraded Service 실시

(주)원 텍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서비스와 인정 받는 컨설팅!

지속적인시험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시험소인 원텍은 (대표이사 김인철) 올해로 설립 18주년을 맞이한다.

4000여 고객을 보유한 원텍은 세계 각국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기 및 전자기기, 의료기기, 기계류, 자동차/선박용 전기전자기기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로 안전규격, 전자파규격, 유무선 통신규격, 신뢰성규격, 품질시스템에 따른 공장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많은 고객들이 원텍을 찾는 이유는, 다양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로 정확한 인증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오랜 경험을 보유한 엔지니어의 컨설팅과 시험 기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전 세계 우수한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된 시험소이며, 2005년과 2006년을 거쳐 IECEE에서 공인하는 안전규격 및 전자파규격 분야에 대한 CBTL로 공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텍은 미국, 일본, 중국 및 대만에 업무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어, Global Network 구축으로 인한 전 세계의 인증을 실질적으로 비용 절감이나 인증기간 단축이라는 결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47개국이 공인하는 원텍의 CB 승인서와 전 세계 20여 인증기관이 인정하는 원텍의 시험성적서는 원텍의 경쟁력을 높이기 이전에, 고객이 편리함과 경쟁력을 보유하게 하므로 이것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 원하는 서비스의 제공이라 말할 수 있겠다.

지금과 같이 규격인증을 대행해 주는 시험소들이

없던 시절, 아무런 Reference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원텍을 일구어 온 김인철사장은, 탄탄한 Global Certification Network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끊임없이 개발하여, 국내 시험소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특히 전세계 47개국에서 인정하는 원텍의 CB 시험성적서는 진정한 One Stop Service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원텍은 현재 총 65명의 인원과 성남에 본사를 두고, 경기도 광주에 전자과 시험연구소를 두고 있다.

성남 본사는 관리부, 마케팅부, 안전인증부를 두고 있으며, 안전인증부 내에는 안전규격팀(1-4팀), 신뢰성팀, 기계팀이 있으며, 전기안전시험 및 신뢰성시험 업무와 기계지침에 따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에 관련된 인증업무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On-Line과 Off-Line에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전자과 시험연구소는 전자과 인증과 유/무선통신 인증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최첨단 설비로 갖춰진 전자과 시험연구소는 정보기기, 가전기기, 가용용기기, 의료기기, 계측기기 등 각종 전기전자 기기에 대한 시험/인증 업무와 기계류 등의 현장시험 (On-Site Test)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투자된 AV 내성시험(EN 55020) 설비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지원하여 더 많은 고객들이 원텍을 찾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50여명이 넘는 숙련된 엔지니어들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원텍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겠다. 손에서 규격(Standard)을 놓지 않는 엔지니어들의 느낌이 웬지 모르게 딱딱할 것 같았지만, 고객을 응대하는 그들에게 그 어디에서도 딱딱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들은 고객이 항상 즐겁고 유쾌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입가에서 웃음을 잃게 하지 않는 원텍의 숨은 조력자들이었다.

원텍 공인인증시험소 지정현황

- Global - CB Testing Laboratory
- APLAC - KOLAS
- 미국 - UL, FCC,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 캐나다 - CSA, IC
- 독일 - TUV SUD, TUV Rheinland, TUV Nord
- 일본 - PSE, VCCI, MHLW, MIC(구, TELEC)
- 노르웨이 - DNV
- 사우디 - SASO
- 호주 - TCA
- 쿠웨이트 - PAI
- 룩셈부르크 - SNCH
- 체코 - ITC
- 한국 - MIC

미국소비자보호협회(UL)와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아시아 최초 Qualified Facility로 원텍을 지정한 캐나다 CSA, 독일 기술검사협회(TUV), 공인시험소 및 공장심사 권한까지 지정한 일본의 PSE-Mark 등 원텍이 제공하지 못하는 인증은 없다.

수많은 승인기관들로부터 지정 받은 원텍은 전문기술진과 최첨단 설비 등을 토대로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다.



맞춤형 서비스중,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있다면, 고객별 기술세미나 라고 할 수 있겠다.

규격인증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기업부터 수많은 인증을 받아온 기업까지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매년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엔지니어에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발단계부터 고려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제품 양산에 이르러서야 고려를 해, 제품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를 최소화 하고자 생겨난 것이 바로 '기술세미나' 이다. 고객의 제품에 맞춰서 진행되는 이 세미나는 일반적인 규격 설명과 더불어 실제 제품을 놓고 주의해야 할 부분을 설명해 나가는 것으로, 고객들이 실질하게 필요로 하던 세미나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인증진행을 빠르고 원만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고객의 바램과 원택의 바램이 함께 스며있는 세미나라 무료로 시행되고 있다.

김대표가 원택을 창업하게 된 동기는 대기업에서 규격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다. 1989년 당시 국내에는 해외규격 인증서비스를 컨설팅하는 시험소가 전무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민간 시험소 1호로 1989년 원택을 창업한 김인철사장 개인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것이다.

경영하며 가장 힘들었던 시기와 그 이유는 ?

시험설비의 투자비용 유지였다. 창업시 6,000만원을 빌려 시작하였지만, 시험설비에 투자할 자금이 현저히 부족하여 사무기기, 정보기기 정도만 시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시험업무를 시작하였다. 그 당시 는 담보 여력도 없었고, 은행권에서도 서비스 업종에 대한 대출도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신청대행 업무였으며, 즉 미국, 캐나다, 독일 등으로 직접 시료를 보내어 시험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승인기간이 2 ~ 3개월 소요되었다.

그 난관을 이겨낼 수 있게 된 계기는 ?

자금의 능력 앞에서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는 마음으로 2 ~ 3개 제품군 (Power Supply, Monitor, PC)에 주력하여 국내에서 시험이 가능하다고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였으며, 매월 약 10 여 개의 제품이 신청되었다. 이로 인해 독일의 인증기관부터 국내에서 시험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승인기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다수의 고정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업무 효율도 향상되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직업인 것이 맞는 듯 하였다. 매년 조금씩 시험설비를 확충하였으며, 마침내는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다수의 인증기관으



로부터 입회시험 (Witness Test)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다.

원텍을 이끌어 나가면서 소홀히 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

시험자의 시험 결과(시험성적서)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및 자긍심이다. 이는 Buyer나 시장에서 검증사의 시험소의 품질과 청렴성에 직결되며, 또한 결과적으로 고객의 제품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고객의 제품 품질안정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지론을 잊어서는 안된다. 고객도 동일하게 생각할 것이며, 시험소의 위상 확립에도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한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를 해야 한다. 팀원, 팀장, 부서장, 임원, 사장으로서 각자가 담당해야 할부분과 일반

업무, 시험업무로 구분하여 업무별 실시해야 할 일 등을 경영시스템화 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면, 회사의 구성원 모두가 일사 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 어떤 개인이나 소수를 위해 결정되고 운영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된다. 회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분위기가 바로 고객을 위해 일하는 것임을 주지해야 한다.

향후 원텍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시험소, 컨설팅기관 등의 업무에서 인증까지를 스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화를 해야 한다. 즉,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한곳에서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